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 우유, 유제품, 원산지, 라벨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이탈리아, 우유, 유제품, 원산지, 라벨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6. 20
이탈리아, 유제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예정

2017. 1. 1
프랑스, 원산지 의무화
시행

2017. 4. 10
이탈리아, 원산지 미표기
기업에게 벌금 부과 제안



핵심이슈
도출

“이탈리아, 유제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시행”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이탈리아, 유제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시행

이탈리아가 유제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을 4월 19일부터 시행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고온살균(Ultra High Temperature, UHT) 우유, 버터, 요거트, 모차렐라 치즈 등 모든 유제품의 포장에 착유국가와 가공국가를 기재해야 한다. 소뿐만 아니라 양, 염소, 버펄로 및 기타 동물로부터 착유한 유제품도 적용 대상이다. 유제품의 착유국가와 가공국가가 모두 이탈리아인 경우, '원산지: 이탈리아'로 기재하면 된다. 유제품의 착유 및 가공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EU 국가와 비 EU 국가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마우리시오 마르티나(Maurizio Martina)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소비자에게 안전과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유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제품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결정할 것이며, 농부, 생산자, 소비자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고 첨언했다.

이탈리아 최대 농업 단체인 콜디레티(Coldiretti)에 따르면, 하루 2,400만 리터의 우유 및 반가공 유제품이 이탈리아로 수입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이탈리아에서 포장 혹은 가공될 경우 이탈리아 원산지로 표기됐었다. 하지만 유제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시행으로, 제품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유제품 구매 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이탈리아 유제품의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자국 유가공 중소기업 보호 및 수입 유제품 범람 차단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이탈리아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착유국가 및 가공국가를 포장에 명시하여 원산지 미표기로 인해 통관이 거부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탈리아 원산지의 유제품이 선호될 수 있으므로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 특히 비 EU 국가의 유가공업체는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은 원산지 표기 외에도, 식품 안전 보장, 정보 투명성 제고 및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는 추세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규제 개정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